

의문과 갈등을 믿음과 예배를 통해 승화시킨 하박국 -복음으로 여는 하박국- 하박국 1:13, 히브리서 10:38

정운돈 목사님

- * **해1: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기를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 * **해10: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을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후대를 위해 직업의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이러한 모든 문제를 통해 내게 주시는 절대미션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하박국은 하박국서를 기록한 선지자이고,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안기다’, ‘안이다’, ‘포용하다’라는 뜻이다.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씨름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압박감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아담과도 비슷하다.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지만 기도로 문제 앞에서 씨름했던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씨름하다’라는 뜻이 중요한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몸부림 치다가 응답을 받고 마침내는 최고의 신앙고백과 응답을 남겼기 때문이다. 보통 그냥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많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훌륭한 믿음 같지만 사실 뿌리가 없는 믿음이다. 그건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종교개혁하고 말씀을 정리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장에 제일 먼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말씀이라고 나온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목숨을 걸고 정리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반석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번 연합예배 때는 구역장, 권찰,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려고 한다.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자기 생각, 자기 의문을 가르치면 안 된다.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개혁 장로교 신학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에게서 두 가지 계시가 있다. 타고나기를 성실하게 믿는 분들이 있다. 그걸 일반계시라고 한다. 우리는 타고난 선함, 삶의 지혜, 경험, 긍정적인 성향으로 믿는 게 아니다. 성질이 못되더라도 성경에 보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흥해를 건너라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예배중심으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믿는다.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한다. 성경에는 도마와 같은 사람도 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체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성격이었다.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봤음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믿지 못했다. 하박국도 이런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에게 일을 맡기면 정확하다. MBTI가 T일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왕은 여호야김 왕 시기였다. 당시 유다 왕국은 내부적으로는 왕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강포가 만연한 상황이었고 대외적으로는 앗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일어나 불안하고 희망이 없던 시기였다. 하박국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더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말이 됩니까?’ 질문한다. 윤리, 도덕적인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씨름하듯이 항의하고 질문을 하였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다’고 대답하신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하박국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다. 당시 남유다에는 온갖 악행과 죄악이 가득했다. 하박국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았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악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까. 이따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요새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아 죄악과 우파가 나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 변론과 분쟁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해 세계복음화하신다고 했는데 미래가 불확실해 보인다. 전 세계에서 칭찬받는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졌다.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잘못이 난무하고 율법이 해이해졌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강포,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 정의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단어들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부정적인 점들이 너무 많다. 우리 마음과 하박국의 마음이 비슷한 것 같다.

(2) 두 번째 질문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박국 1장 13절 후반절을 보겠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넘어갔을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폄박 때문이다. 누가 그런 폄박을 가했을까? 종교개혁했던 개신교들, 성공회가 폄박했던 것이다. 다른 종교가 폄박한 게 아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폄박했다. 복음적으로 잘 믿어보려는데 왜 덜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폄박을 받을까? 우리는 잘못된 게 없는데, 더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왜 오해받고 이상승배자들, 이교도들, 나쁜 나라들에게서 폄박을 받을까?

(3)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약간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주신다. ‘이 말씀을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대답하셨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크게 붙여 놓으라 하신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고 하신다. 더디고 부족하더라도 기다리라고 하신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백 년의 응답, 천 년의 응답은 백 년 후, 천 년 후에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열 명의 황제에게 폄박당한 후 복음화되었다. 꼭 당대에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할 바탕을 만들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4) 또 하나님의 답변은 선악의 경중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었다. 하박국 선지자는 포악을 행한 지도자들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사람들과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선은 구원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며 차이가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다.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착하고 정직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전에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은 착하든 교만하든 정직하든 구원의 문제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된다는 말이다. 조금 더 착하고 바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조금 더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믿음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정말 빛이 된 삶을 살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원래 성격이 착한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다. 제계 초등학교 때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서 오랜만에 보니까 눈에 독기가 있더라. 일진들하고 돌아다니더니 완전히 이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선행하고 그것으로 참고 복음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해야지, 원래 착한 그 성격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언제 더 이상해지지 모른다. 성격과 안 맞는 길을 가게 된다. 성격은 온전하라고 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것이다. 안 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박국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 교회, 이 나라에 있는 것을 감사하셔라. 요셉은 노예생활을 할 때도, 감옥생활을 할 때도 감사했다. 태도와 자세는 노예와 같은 자세로 섬겨야겠지만 의식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면 그게 빛이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돈 계산하고 자기 살 길 찾고 책임회피하는 사람은 먼저 인간이 되지 못한 것이다. 학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 하박국처럼 따져라. 저는 어렸을 때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삼위일체가 세상에 반영되어 있었다. 시간(과거, 현재, 미래)이 삼위일체다. 공간(가로, 세로, 높이)이 삼위일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 고민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도 참된 질문을 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갖기 바란다. 전도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새가족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전도도 못한다.

(5) 세 번째 답변으로 결국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에 신경 쓰지 말라며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교회와 후대 램넌트들을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의 선교현장에 이러한 응답이 성취될 줄 믿는다.

2.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적인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대한 갈등들을 믿음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승화시켰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얻고 응답을 얻으면 평안이 생긴다. 그리고 확신이 생긴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 문제를 두고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해라.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4박 5일 기도원에 가셨다가 이틀 만에 응답받았다고 돌아오시더라.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 평안함과 확신, 기대를 주신다. 여러분도 그때까지 기도하셔라. 세상과 다른 평강, 다른 확신이 있다. 그게 예수 믿는 비밀이고 재미다. 그 맛을 봐야 한다. 맛집은 아무리 멀어도 다시 찾아가고. 신앙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해답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하박국 선지자는 엄청난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후로 신약성경 말씀에서도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그대로 인용되었고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도 모두 이 말씀을 근거로 오직 믿음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기록된 바’는 바로 하박국서를 말씀하는 것이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서를 근거로 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던져진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과 갈등은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탄생시키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던져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과 해답, 평안과 확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2)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를 오히려 기도제목과 믿음으로 바꾸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갈등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생기니까 수년 내에 부흥시켜 달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란다.

(3) 또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더 큰 확신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도 백성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들이 회개하면 우리의 죄와 잘못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받게 해 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기도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다.

(4)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다. 하박국이 완전히 거둬나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거둬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람들은 돈 없으면 돈생각, 병 들면 병생각, 자녀 문제 있으면 자녀생각, 교회 문제 있으면 교회생각만 한다. 그런데 하박국은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한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망대, 7이정, 7이정표 중에서 7망대다. 7대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오력, 공중권세 결박, CVDIP, 세 가지 뜰이다. 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② 우리가 만약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천군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③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통해 응답을 주실 것이다. ④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⑤ 흑암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⑥ 우리와 우리 교회와 후대와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CVDIP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⑦ 금토일시대와 세 가지 뜰, RUTC를 통해 세상에 빼앗긴 문화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끝으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오직 믿음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심 많고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우리에게 하박국의 여정을 통해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박국에게 은혜와 믿음과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보좌의 문을 여사 모든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